

# ICT기술개발로 청각장애인 일상 돕는다

## 전주시, 음성 인식·웨어러블 디바이스 통해 정보 전송

전주시가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청각장애인들의 생활안전과 의사소통을 돕는 스마트기기를 개발했다.

시는 전주시사회복지센터에서 박순중 전주시장과 이상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강대성 동아대 교수, 정순곤 휴먼미디어테크 대표, 미래부 관계자, 전주시 청각장애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디바이스 개발 완료보고 및 실증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전주시와 미래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동아대학교, 과제수행업체인 휴먼미디어테크가 지난해 8월부터 함께 개발해온 청각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착용가능) 디바이스가 공개됐다.

이 기기는 청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동시에 실행하면 청각장애인의 주변 음성 및 위험신호를 인식하고, 인식된 정보를 웨어러블 디

바이스를 통해 청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또, 응급상황발생시에는 위치정보와 문자기능을 이용해 112 또는 119 신고 서비스와 연계된다.

또한, 타인과의 대화시에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해줘 비장애인과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시가 이처럼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공공디바이스 개발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해 기준 전주시 등록장애인 32,966명 중 9.6%를 차지하는 3,166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음성언어를 기반으로 소통하는 우리 사회에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공공디바이스 용역 개발 및 실증 서비스 사업' 공모에 청각장애인의 위험인지 및 의사소통을 위한 과제에 응모해 선정되면서 공공디바이스 개발에 착수해왔다.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지난 3일 전북도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전주시 시니어클럽연합회(전주·서원·효자시니어클럽)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장,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1000여명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안전성 확보 및 의사소통 등 기본권 보장으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신 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커피숍 근무 장애인 여성 성폭행한 40대 매니저 입건

전북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 중인 커피숍에서 근무하는 여성 장애인이 매니저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일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커피숍 매니저 A씨(43,남)씨를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간 근무시간 이후 카페에서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당한 여성은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 근무에는 지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페는 전북의 한 지자체에서 일 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만든 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연인사이였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 김승환 교육감, 검찰 출두... 혐의 전면 부인

## 감사원 인사 개입 고발에 "표적 감사 통한 고발"

전북 교육청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3일 경찰에 출두하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감사원과 검찰에 한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전북교육감을 뒤지는 식으로 했다면 오늘날 나라가 이 꼴이 됐겠느냐"며 "특히 헌법 닦을 하는데 동을 부리도록 허용하고 있었느냐"고 현 정부에 대해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곳까지 않게 청렴한 교육행정을 해왔으니 도민은 안심해 달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인사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을 시키기 위해 실무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 권한에서 벗어나 근무평정 작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인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FIFA U-20 월드컵 홍보활동 실시

전주시가 K-리그 축구팬들에게 오는 5월 20일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대회 알리기에 나섰다.

시는 5일 K리그 전북현대포터스FC의 개막전이 열린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23일간 전주 등 국내 6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FIFA U-20 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시는 축구도시 전주를 있게 한 전북현대포터스FC 축구팬들의 U-20월드컵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회 공식 마스코트인 '차오르미'와 함께 △마스코트와 함께 사진 찍기 △축구공 게임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한편,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4개

국(아시아 5, 유럽 5, 아프리카 4, 북중미카리브 4, 남미 4, 오세아니아 2) 20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축구 대회로, FIFA에서 주관하는 대회 중 월드컵 다음으로 규모가 큰 대회이다.

대회기간 중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선수들이 활약하게 될 개막전을 비롯한 조별예선 6경기와 16강전, 8강전, 준결승전 등 모두 9경기가 펼쳐진다.

/김민근 기자

## 전북경찰,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 단속

### 5월 17일까지 시행... 경미범죄 면책제도 추진

전북지방경찰청은 주민 불안을 야기시키는 상습적 폭행, 협박, 갈취행위를 일삼는 폭력배들을 근절하기 위해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 단속'을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피해신고 및 제보활성화를 위해 피해자 또는 신고자들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주변 폭력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함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미한 범규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부담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기간 내 경미법행위를 한 피해자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면하게 해주어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생활주변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입어 신고한 이들이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준법서약서' 작성 후 불입건 처리되며, 불입건 피해자의 업무위반 행위는 지자체 통보를 생략하여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다.

만일 동종전과가 있을 경우는 준법서약서를 작성 후 입건·송치되며 검찰에서 사인에 따라 준법서약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 업무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요청을 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은 금년 2월 7일부터 생활주변 폭력배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조직폭력배 12명, 주취폭력배 9명, 생활주변폭력배 16명 등 총 37명을 검거하여 그중 12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위한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가 완전한 지방자치체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지방자치체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및 소선거구제 전환 등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행정·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8대 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오는 날 지방자치는 2할 자치에 그치고 있다"라며 "특히 정부가 기초연금과 무

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파산상태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점 요구사항은 ▲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 기초지방자치 정당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 ▲ 주민감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 ▲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이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다가공원 강당재 도로확장사업 본격화

전주시가 좁고 사고위험이 있어 불편한 다가공원 강당재 도로확장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총 사업비 1억4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5월까지 중화산1동과 완산동을 잇는 다가공원 주변 소로인 강당재 길 145m 구간을 기존 폭 4m에서 차랑 교행이 가능한 폭 5m의 도로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또, 도로 측면 경사부에서 내려

오는 토사가 도로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측면 배수로를 정비하고, 겨울철 급경사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 포장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사 구간은 엠마오사랑방원 삼거리에서 중화산동 강당재 자율방범대까지로, 시는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3개월 여 동안 교통을 통제기로 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